

세상의 모든 관심사 하나로... '카카오 유니버스' 첫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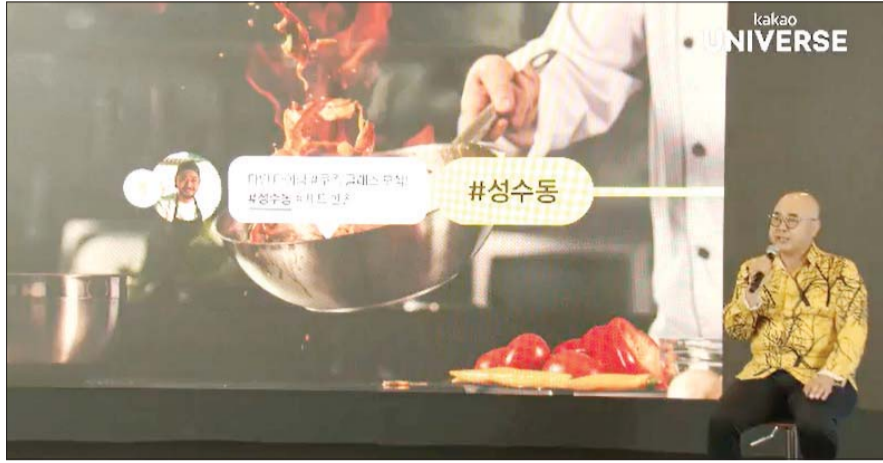
카카오 온라인 기자간담회

카카오톡 기반 '오픈링크' 핵심 전 세계 연결 서비스 발전 계획 남궁훈 대표 "소통 새 경험 제공"

카카오가 세상의 모든 관심사를 연결하는 메타버스 서비스인 '카카오 유니버스'를 공개했다. 카카오의 메타버스는 취미, 장소, 인물 등 공통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즐기는 '오픈링크'가 핵심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카카오는 프로필 외에도 친구맵, 대화탭 등 카카오톡의 비목적성 요소들을 배치해 카카오톡을 더욱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 확장시킨다는 전략이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카카오 유니버스는 개별 서비스를 하나로 엮어내는 것으로, 마블의 개별 히어로가 하나의 세계관으로 모이는 것과 닮았다"며 "세상의 모든 관심사가 연결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반려동물 등 공통 관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7일 개최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심사를 가진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 대표는 "오픈링크는 링크들이 모인 것으로 카카오가 운영하는 서비스 뿐 아니라 카카오 전체 서비스로 연결되고 외부 세상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카카오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오픈링크만 있으면 시간, 공간의 제약 없이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메타버스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3D 방식의 플랫폼인 데 비해 카카오가 말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는 텍스트

기반으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남궁 대표는 "메타버스는 여러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텍스트가 메타버스의 근간으로 텍스트에 더 집중하는 것이 메타버스 시대로 접근하는 방법론이 된다"고 설명했다.

오픈링크를 통해 카카오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에도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해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남궁훈 대표는 "관심사를 기반으로 소통하며 텍스트를 넘어 다양한 멀티미

디어로 소통의 새 경험을 제공하며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창작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카카오가 꿈꾸는 우주통신규약"이라며 "1%에서 99%로 향하는 카카오의 도전으로 비온드 모바일, 비온드코리아라는 더 큰 비전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또 비목적성 커뮤니케이션 역할 확장, 창작자와 이용자간 B2C2C 생태계 구축을 진행한다는 전략이다.

B2C2C 생태계가 형성되면 창작자들은 슈퍼팬을 만들기 위해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용자들은 창작자들이 발굴한 흥미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 유니버스는 국내 이용자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글로벌 서비스들과 연계해 전 세계 사람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카카오는 또 카카오톡 프로필 영역에 대대적인 변화를 준다. 하반기 프로필 개편을 진행해 이용자가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스스로를 다채롭게 표현하

고, 나만의 펫을 키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일방향이던 상태 메시지를 적어두는 것이 아니라 프로필에 방문한 친구들과 이모티콘, 응원메시지, 선물 등 다양한 소통 기능을 통해 교감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카카오 공동체와의 협업을 통해 텍스트 위주였던 카카오 서비스들을 이미지, 영상을 넘어 가상현실 영역까지 확대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메타버스 환경을 제시할 계획이다.

카카오브레인은 'KoGPT'와 '칼로(Karlo)' 등 초거대 AI 모델들을 바탕으로 2가지 기능을 준비하고 있다.

'상호작용형 AI'는 얼굴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페이스리타겟팅' 및 '또 다른 자아를 구현할 수 있는' 뉴럴 렌더링'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멀티 페르소나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활용하면 사전 한정판으로 다양한 형태의 3D 캐릭터가 자동 생성돼 멀티 페르소나를 표현할 수 있고, 오픈채팅 또는 영상 통화에서 비지인들과 역할 놀이를 하는 등 색다른 소통이 가능하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SKT, 서울 '5GX 에지존' 구축... 이용경험 확대

대전 이어 두번째 서비스 거점 마린 AI·로봇 등 특화서비스 확산 가속

SK텔레콤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협력해 국내 두번째 5G 에지 클라우드 서비스 거점 '5GX 에지존(Edge Zone)'을 서울 지역에 새롭게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5GX 에지존'은 SKT 5G MEC(Mobile Edge Computing)와 AWS 웨이브랜스(AWS Wavelength)가 구축된 거점으로, 5G와 클라우드가 만나는 최단 경로에 위치해 네트워크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AWS 웨이브랜스는 5G 네트워크에서 AWS 컴퓨팅 및 스토리지 서비스를 포함해 매우 낮은 대기 시간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며 확장하기 위한 모바일 에지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고객사들은 5GX 에지존에 위치한

'5G 에지 클라우드'에 접속해 AWS와 동일한 개발 환경에서 초저지연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

양사는 5G 에지 클라우드 서비스 협력을 위해 지난 2020년 대전에 국내 최초 5GX 에지존을 구축한 바 있으며, 초실감형 미디어·클라우드 게임·로봇 등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에 구축한 5GX 에지존은 5G 에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고객사 애플리케이션의 수요를 분산시켜 고객의 클라우드 접속 효율성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특히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과 대전 2곳의 5GX 에지존을 운영하게 된 SKT와 AWS는 고객 위치 기반으로 최적의 에지 클라우드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5G 에지 디스커버리' 기술도 새롭게 선보인다.

5G 에지 디스커버리는 고객이 위치한 지역과 가장 가까운 에지존을 탐색해 자동으로 저지연, 실시간 서비스에 가장 효과적인 연결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SKT는 5GX 에지존 확대를 통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AI, 로봇, 헬스케어 등의 5G 특화 서비스 확산을 위한 협력도 가속화한다.

자율주행 기반 로봇 전문 기업 '뉴빌리티'와 협력을 진행 중인 SKT는 수도권과 제주도 등지에서 실외 배송 로봇에 대한 실증을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로봇 제어 신호 수집 및 관제 시스템을 서울 5GX 에지존에 구축해 안정성과 원격 관제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채윤정 기자

KT, 미디어 계열사 '부산콘텐츠마켓' 집결

공식 후원... 예정 작품 가이드북 배포

KT가 8일부터 1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부산콘텐츠마켓2022(BCM, Busan Contents Market)'를 공식 후원하고, 그룹 내 미디어 계열사들을 모아 콘텐츠 마켓 행사에 참여한다고 7일 밝혔다.

KT가 원전IP 확보부터 콘텐츠 기획·제작, 유통으로 이어지는 미디어 밸류체인의 본격 가동을 시작하면서 미디어·콘텐츠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며 DIGICO(디지털플랫폼기업) 전환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KT는 부산콘텐츠마켓2022(BCM)을 공식 후원하고, KT그룹 미디어·콘텐츠 계열사인 KT스튜디오지니, skyTV(스카이티브이), KT알파가 홍보 부스에 참여해 자체 제작·투자한 오리지널 콘텐츠와 KT가 유통하는 오픈 주문형 비디오(VOD) 등을 국내외 시장에 선보일



부산콘텐츠마켓2022에 참가한 KT그룹사(KT 스튜디오지니와 skyTV) 홍보 부스. /KT

계획이다.

KT 그룹 미디어의 컨트롤타워 역할로 출범한 KT스튜디오지니는 BCM에서 현재 윌레 tv, ENA 채널 및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구필수는 없다'를 비롯해 '굿잡',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등 신규 라인업을 선보이며, 올해 공개예정인 작품들의 프로그램 가이드북을 배포할 것이다. 또한 본 행사에 참여한 글로벌 바이어들과의 미팅을 통해 오리지널 콘텐츠 홍보와 판매에 주력할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LGU+, '디아블로 이모탈 패키지' 출시

갤럭시S22 울트라 기반 한정판 구성

LG유플러스가 삼성전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갤럭시S22 디아블로 이모탈 패키지'를 단독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는 유아동을 위한 키즈폰인 '카카오리틀프렌즈폰'과 청소년 전용 단말기인 'U+플렌폰' 등을 출시하며, 고객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보여왔다. 이번 한정판 패키지는 인기 게임 IP를 활용한 한정판 제품을

전 세계 유일하게 출시, 게임과 한정판에 관심이 높은 고객에게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블리자드의 신규 모바일 게임인 '디아블로 이모탈'에 맞춰 출시되는 한정판 패키지는 전세계 100대 한정판으로 판매된다. LG유플러스는 모바일 게임에 관심이 많은 20~40대 남성 고객의 구매 비중이 높은 '갤럭시S22 울트라' 모델을 기반으로 한정판 패키지를 구성했다.

패키지에는 '갤럭시S22 울트라' 모델을 포함해 ▲전용 우드 패키지 ▲가



LG유플러스 모델이 전세계 100대 한정판으로 출시된 '갤럭시S22 디아블로 이모탈 패키지'를 소개하는 모습. /LG유플러스

죽 마우스 패드 ▲블리자드 배틀코인 쿠폰 카드 ▲블리자드가 디자인한 렌티큘러 커버 ▲전용 스마트폰 케이스 등이 포함됐다.

/채윤정 기자

밀리의서재, 해킹공격으로 1.3만명 정보 유출

밀리의서재 1만 3000명 이상의 회원 정보가 3년만에 또 유출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책 구독 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해킹공격으로 1만 3000명 이상의 회원정보가 유출됐다. 밀리의서재 측은 지난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 및 사과문을 올리고 해킹 피해를 알렸다.

회사 측은 "6월 3일 새벽 4시경 1만 3182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메일 주소·암호화되어 식별 불가능한 전화번호 및 비밀번호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중"이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통신위원회에도 해킹 사실을 신고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수신 시 주의를 기울여달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해 철저히 조사하고 개인 정보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해킹은 2019년 6월 이후 3년만이다. 당시 11만 7800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겪은 바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